

황숙주 순창군수, 군민소통 나선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군정방향 설명·주민 건의사항 청취

황숙주 군수가 민생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 군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16일 적성면을 시작으로 24일까지 황숙주 군수가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과 소통하는 연초 읍면 현장방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해 군정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정방향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또 군정발전에 공이 많은 주민들에 대해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도 진행된다.

읍면별로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적성면을 시작으로 17일에는 동계면, 18일에는 구림면과 인계면, 19일 북흥면, 쑥치면, 20일에는 유등면 종산면, 23일 금과면, 24일 팔덕면과 순창읍 방문을 끝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 한다.

군은 올해 읍면 연초 현장방문을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고 격 없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황숙주와 주민과의 거리를 좁힌다.

특히 지난해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설명해 군 행정이 군민의 의견을 존중

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현장에서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연초방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까 최대한 많은 소리를 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다양한 층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현장방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방문 시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추모공원화 사업이 10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남원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마무리

14억 투자... 생가복원·주차장 설치·묘역정비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추모공원화 사업이 10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남원시는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 그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생가복원, 주차장 설치, 묘역정비 등을 시행하였다. 사업 진행 중 분관교부세 폐지로 국가 예산이 삭감되고 설상가상으로 전북도

예산마저 삭감될 처지에 놓여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남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비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2015년부터 15억 5천만원을 투자해 지난해 말 추모공원 사업을 완료하였다.

추모공원은 총 31,760㎡의 묘역, 열사의 회생정신과 4.19혁명의 역사를 알릴 추모·기념관, 광장, 녹지, 연못, 산책로, 주차장, 정자, 화장실 등 편의 시설과 휴양시설로 구성되었다.

또한, 화원을 조성하여 봄(자꽃),

가을(백일홍)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추 남원시장은 "47년전 민주주의의 안축기를 햇불로 밝힌 김주열 열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추모공원이 완공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열사의 회생정신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주화 교육의 체현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금지 출신인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다 주검으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사랑상품권 5% 할인 공급 판매액 22억원 돌파

임실군은 올해부터 임실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발행해 현재 판매액 22억원을 돌파했으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전통시장, 중소 영세상인 등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로 사업시행 5년차를 맞아 지역

화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기존 3% 할인에서 5%로 할인율을 상향조정했으며 올해 총 10억원의 상품권 발행 액수 중 1단계로 5억원을 발행·유통한다.

또한 설 명절 전후로 지역내 기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 홍보를 실시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사람이 모이고 활력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주당 순창지역 여성위원회 발대식·신년 하례식 열려

정권교체 위한 출발 다짐

더불어 민주당 남원·순창·임실지역위원회 순창지역 여성위원회(위원장 신정아)가 최근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건강장수사업소 교육관에서 2017년 정권교체 및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합한 출발을 다짐하면서 "순창지역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 및 신년하례식은 김춘

진 전라북도당 위원장, 최은희 여성위원장,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남원·순창·임실 위원장, 이행숙 부위원장, 황숙주 순창군수, 김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최영일 도의원,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순창지역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정아)는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양심의 촛불로 거대한 민주주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촛불민심은 기존의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여성당원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여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과 참다운 민주정치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불어 민주당을 만들어 내자고 거듭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찾아가는 신바람 영화극장 '웃음꽃'

순창 동계면, 2월 말까지 매일 오전·오후 2차례 상영

순창 동계면에서는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신바람 영화극장을 추진해 마을 주민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있다.

신바람 영화극장은 동계면에서 농한기철 무료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면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도 면민들의 요청이 많아 최근 용동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다.

영화는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상영하고 있으며 2월 말일까지 운영해 전 마을 주민들이 영화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계면사무소에서는 어르신들 취향에 맞는 DVD를 작은도서관에

서 대여하거나, 원하시는 재미있는 영화 DVD를 구입하고 빔프로젝터를 준비해 최대한 어르신들이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화가 끝나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꽃도 피워 겨울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과 따뜻한 이웃사랑도 나누며 주민화합의 장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용남 면장은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영화관에 나가는 불편 없이 취향에 맞는 영화를 즐기는 신바람 영화극장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면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소방서 소방안전교육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고창군 상하면 여성이용소방대의 발전방안 및 역할, 우리가정 화재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순재호 무장119안전센터장의 강의를 통해 119신고요령, 최근 주택화재사례 소개, 고창소방서 주요업무 소개와 함께 소화기 사용 및 관리요령 교육,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교육했다. 특히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기한 도래에 따른 일반주택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안전지킴이 및 홍보대사의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어 가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례를 전한 후 여성이용소방대의 역할,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등을 교육함으로써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안전 기초상식을 배양하고 2017년 상하면 여성이용소방대의 큰 활동을 기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고고당 기초검사 실시

임실군은 치매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고당(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 '내혈압·내혈당·내지질 알기 캠페인 및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의심자는 재검사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심뇌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인식향상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마을회관에 직접 진출하여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설 명절전 어르신과 청소년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이 예상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주민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활동은 최근 어르신 상대 발생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사례(집안에 현금보관 등)를 설명하고 의심스러울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에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보이스피싱은 피해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웃간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작지만 예방방지의 실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범죄에 취약한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대면홍보활동을 실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19일부터 서울서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민족화대의 명절 설을 맞아 '맑고 푸른 청정지역 임실'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임실군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자치단체인 서울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강서구청 광장을 시작으로 24일 양천공원·마포구청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직거래 장터는 임실치매노년회 외 12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엄선된 품질을 자랑하는 치즈 및 유제품류, 육류, 배, 꿀, 한과, 삼계탕, 장류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군 이미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재경향우 회원을 대상으로 고향 소식을 담은 행사 안내장 1천400여장을 발송해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으며 특히 오는 20일 심민 군수가 강서구청 행사장을 방문해 참여업체와 농가를 격려하고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